

#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삼상 3: 10)

### 충현 디지털 역사관 소개

7면을 참조하셔서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보기도부 제6회 ‘헌신자의 날’

중보기도 사역과 예배기도단 사역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과 중보기도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8월 19일(토) 11:30 - 13:00

장소: 제2교육관 4층

참석 신청: 8월 13일(주)까지 중보기도부 행정실  
(식사준비 관계로 미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3 전교인 성경통독 리딩지저스 교재 배부 안내

리딩지저스 5, 6권을 배부합니다.  
(2023년 구입하신 분만 수령하시면 됩니다.)



배부일정: 8월 6일(주일), 13일(주일)

배부장소: 선교관1층 교구 간사실 및 각 교구모임 장소

문의: 최병일 안수집사(010-7534-2952)

\* 각 부서는 담당 교역자를 통해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저스틴 피터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 ‘성경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읽기와 듣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성경을 큰 소리로 읽을 때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 영혼이 깨어나고 반응하게 됩니다. 2주간의 방학 이후 새롭게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 특별 수요 권사 기도회

일시: 8월 9일(수), 16일(수) 시간: 12:40~13:10 장소: 갈릴리홀

### 차세대/세움 위원회 여름/가을 수련회 일정

|         |                   |          |                                |
|---------|-------------------|----------|--------------------------------|
| 청년1부    | 8월 10일(목)~13일(주)  | 성도교회 수양관 |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롬1:16)    |
| 청년2부    | 10월 19일(목)~21일(토) | 충현기도원    | 사랑, 그 분명한 증거 (요일 4: 11)        |
| 브릿지 공동체 | 9월 15일(금)~16일(토)  | 충현기도원    | 성벽재건 프로젝트 (느 1:1~11)           |
| 청년 3부   | 8월 25일(금)~26일(토)  | 충현기도원    |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창 32:24~32)     |
| 신혼가정부   | 10월 13일(금)~14(토)  | 충현기도원    |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라! (고후 5:18~19) |
| 사랑부     | 8월 14일(월)~15일(화)  | 숲속의 아침   | 예수님 이야기 (마 16:16)              |
| 에바다부    | 8월 14일(월)~15일(화)  | 충현기도원    | 언약을 붙드는 믿음 (히 1:11)            |
| 소망부     | 10월 24일(화)        | 갈릴리홀     | 사랑의 사귄(요일 4:7~10)              |

### 전교인부흥회

- 주제: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 일시: 2023.8.30(수)~9.1(금) 저녁 7시 30분
- 장소: 충현교회 본당

강사



권성수 목사  
(대구동신교회 원로)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담임)



김남준 목사  
(열린교회 담임)

###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 연주곡: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아」
- 일시: 2023.9.8(금) 저녁 7시
- 장소: 충현교회 본당
- 충현교회 연합찬양대 |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지 휘  
박영민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테너  
국윤중



소프라노  
김사론



메조소프라노  
임은경

### 기념감사예배

- 일시: 2023.9.10(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충현교회 본당
- 설교: 권순웅목사(총회장)
- 대상: 충현교인 및 본교회 출신 목회자/성도
- 2부: 축하행사



권순웅목사

### 충현교회설립 70주년기념



지난 주일(7월 30일) 설교 되새기기

# 이것이 다니엘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였다

(다니엘 1:8-10, 14-21)



다니엘 1-6장에는 사자굴, 풀무불, 왕의 꿈 해석과 같은 재밌고 친숙한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니엘 7장-12장의 내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끝 날”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12장을 살펴보면, 개국 이래 없었던 환난이 오게 되고(단 12:1), 마지막 때까지 그 책을 봉하며(단 12:4), 세마포 입은 사람(단 12:6)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단 12:13)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12장의 묵시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지고, 사탄은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단 1:1-2)”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시킨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며, 성전에 있던 귀한 물건들도 노획해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싸움으로 간주되었기에 승자가 패자의 신전을 노획하여 자신들의 신전에 두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한 발 더 나아가, 점령지의 유망한 소년들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철저히 바벨론화 시킨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민족과 점령당한 민족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다니엘도 이러한 포로로서 바벨론에 끌려갔기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공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심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0절)” 다니엘은 주변의 모든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21절)” 더 놀라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간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약 70년간, 여러 왕이 바뀌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주요 지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대 최강국인 바벨론을 가리켜 하나님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속주의임에도 잘 되는 세상, 넘을 수 없을 듯 보이는 세상의 힘과 화려함으로 표현합니다. 바벨론처럼 점점 더 강해져가는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벨론 안에서 승리한 다니엘의 삶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8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정했던 다니엘의 뜻은 곧 바벨론이라는 세속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 1:27)” 사도 야고보는 세속에 물들지 않음이란, 자신을 세속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넘어서 환관 중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바벨론의 아들이 되지 않고자 했던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제안하거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바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삶의 방향을 정하여 반드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원어로는 ‘화가 날 때 화를 곱씹듯, 정한 뜻을 지속적으로 마음속에서 불리일으키는 과정’이라는 뜻이 담긴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바벨론에 동화됨으로 당대 최강국의 유망주가 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단호한 뜻을 세웠으며, 그 뜻을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함으로 더욱 단단하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심지어 병들고 약할 때에도, 마음으로 뜻을 정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뜻을 정

하고, 그 뜻이 다니엘처럼 작동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를 깨닫는 복된 시간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활을 얻게 하신지라 (9절)”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하여, 바벨론의 문화에 철저히 동화되게끔 하는 임무를 맡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는 다니엘의 부탁은 환관장으로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환관장에게 공활한 마음이 생겼고, 다니엘이 정한 뜻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습니다. ‘피할 길’을 통하여 나타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활은, 마침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7절)”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모든 지성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혜도 주셨습니다. 세속의 강력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혜 안에는 지식과 학문은 물론 꿈을 깨닫는 신비한 능력도 포함됩니다. 다니엘 2장 이후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함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꾸었던 이상한 꿈을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그 해석을 명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던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니엘은 바벨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으로 자라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렵고 불안정한 시기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앞에 두고 있다하더라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뜻을 정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설교제목인 “다니엘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단호하고 단순하게 뜻을 정하는 단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을 때, 그 뜻 안에 머물러 있게끔 해주는 은혜와, 그 뜻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실현하고 확장시켜 주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70년의 긴 시간동안 이방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아들로 살기 거부한 다니엘은, 역설적으로 바벨론에서 청년이 되었고, 바벨론의 리더가 되었으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바벨론의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땅의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아닌, 영원하신 왕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꾼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자 결단하였기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단 2:44)”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은 바벨론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라 고백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정했던 그 마음, 그 마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담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심정 가운데 오래 남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This Enabled Daniel  
to Win the World

(Daniel 1:8-10, 14-21)

Rev. Kyu Sam Han

There are largely familiar and funny stories like the Den of Lions, the Fiery Furnace and the Interpretation of King's Dreams recorded in Daniel 1-6. On the other hand, the content of Daniel 7-12 is not easy at all. It is because observed Chapter 12 titled 'The End Times', 'There is to come a time of distress such as has not happened from the beginning of nations,(Dan 12:1), to close up and seal the scroll until the time of the end(Dan 12:4), and a man clothed in linen appears(Dan 12:6), which is the story about the end of the days like Revelation(Dan 12:13). Although it is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the apocalypse of Daniel 7-12, we can apprehend it as the meaning that on the last day when God is finally victorious, the kingdom of God stands firm permanently, and Satan stands before the Judgement throne. "In the third year of the reign of Jehoiakim King of Judah,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came to Jerusalem and besieged it. And the Lord gave Jehoiakim King of Judah into his hand, with some of the vessels of the house of God. And he brought them to the land of Shinar, to the house of his god, and placed the vessels in the treasury of his god.(Dan 1:1-2)". King Nebuchadnezzar, who almost demolished Jerusalem, took Jehoiakim King of Judah to Babylon and captured some precious treasures from the house of God. It was because there was a convention in the ancient period that a war was regarded as a war between gods so that winners captured treasures from losers' temples of god and placed them in their temples of god. However, Babylon, taking one step further, took promising young men from the occupied territory. It was to make them play intermediate roles between Babylonian people and occupied people after teaching them Babylonian culture and language thoroughly to make them complete Babylonians. Because Daniel was also taken to Babylon as a captive, he seemed to be in a state where the fear of when or how something would happen to him and the hope of viability co-exist. "And in every matter of wisdom and understanding about which the king inquired of them, he found them ten times better than all the magicians and enchanters that were in all his kingdom.(v.20)". Daniel became an unsurpassed person among all of those around him. "And Daniel was there until the first year of King Cyrus.(v. 21)". It is the more surprising fact that Daniel taken to Babylon in the period of King Nebuchadnezzar still stayed in the important position for about 70 years till the first year of King Cyrus even though several kings were changed and even the kingdom was changed from Babylon to Persia. The Bible expresses the most powerful country, Babylon, in that period as the world prospering in spite of secularism denying the values of God, or the power and splendor of the world which seemed to be unsurpassable. That's why all the believers living in the world of this age, which gets strong more and more like Babylon, should watch carefully the life of Daniel who won in Babylon.

**Purposed in his heart**

"But Daniel resolved that he would not defile himself with the king's food, or with the wine that he drank. Therefore he asked the chief of the eunuchs to allow him not to defile himself.(v.8)". The will of Daniel who resolved that 'he would not defile himself' was the implication that he would not be assimilated into the secularity, that is, Babylon. "Religion that is pure and undefiled before God the Father is this: to visit orphans and widows in their affliction, and to keep oneself unstained from the world.(Jas 1:27)". The Apostle James emphasizes not to be defiled by secularity is not only to keep himself from the world but also to go further to take care of orphans and widows in their affliction. It was Daniel's determination not to be a son of Babylon. Daniel did not suggest 'I will try it once.' or express it as his wish 'I'd like to live this way,' rather, he firmly determined the direction of his life and resolved surely to live that way. According to the original word, it is an expression that contains the process of invoking the determined will continuously in the heart just as one brood over anger when angry. Daniel discarded the way how he could become a greatly influential character in the most power-

ful country by being thoroughly assimilated into Babylon, resolving not to defile himself before God, and becoming firmer by chewing the purposed will in his heart. No matter how difficult the situations we are in, even when we get sick and weak, to purpose the will in our hearts becomes consolation to us. I hope in the Lord that the work of determining the will and the will being operated in Daniel will also take place within us.

**After he decided his will**

"And God gave Daniel favor and compassion in the sight of the chief of the eunuchs,(v. 9)". When Daniel made up his mind, God gave him grace. Daniel's request to allow him not to eat the king's food was for the chief eunuch, who had been entrusted with the duty of making them eat Babylonian food so that they must be thoroughly assimilated into the Babylonian culture, to have to risk danger. Nevertheless, when God poured out grace, the chief eunuch became merciful, and the condition through which Daniel's purposed will could be fulfilled was made. The grace and mercy of God that appear through 'the way of escape' lead us to a better place at last. "As for these four youths, God gave them learning and skill in all literature and wisdom, and Daniel had understanding in all visions and dreams.(v. 17)". God gave Daniel who determined his will the wisdom that all the intelligent men of Babylon could be insurmountable. We surely need the wisdom to live confidently as people of God in the powerful secular culture. Within the wisdom are contained not only knowledge and scholarship but also mysterious capacity. Examining the after Daniel 2, Daniel comes up to the most influential position by interpreting dreams. Without telling anyone the strange dream he had dreamed, King Nebuchadnezzar ordered to interpret it, but only Daniel, who had received wisdom from God, could interpret it. Through this, Daniel could walk the path of growing as a mature worker of God, not a child of Babylon.

**As a servant of the Kingdom of God**

Like Daniel who determined his will in the difficult and unstable period, we must decide our wills. Even though you have an unclear future ahead, I hope you should not let your mind be distracted, and decide your will firmly. Just at that time, God gave Daniel knowledge and grace. The title of the sermon, 'This Enabled Daniel to Win the World' refers to the firm faith that simply and resolutely decides the will. When you decide the will before God, God pours out the grace that allows us to stay within the will and the wisdom that realizes and expands the will into a more developed appearance. If so, what is the reason that Daniel could live influencing on the heathen land for a long period of 70 years? Daniel, who refused to become a son of Babylon, paradoxically became a youth and a leader in Babylon, and an outstanding leader of Babylon whom no one could compete with indulgently. It is because Daniel became a subject of the everlasting king, not a subject loyal to a king of this earth. Since he resolved to become a worker of the everlasting kingdom of God not a worker of this world, God established him as a worker who fulfills the work of God for 70 years when kings and nations are changed. "And in the days of those kings the God of heaven will set up a kingdom that shall never be destroyed, nor shall the kingdom be left to another people. It shall break in pieces all these kingdoms and bring them to an end, and it shall stand forever,(Dan 2:44)". God used preciously Daniel who professed to King Nebuchadnezzar that he is not a child of Babylon but a man of the Kingdom of God and a worker serving the Kingdom of God.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he heart that Daniel decided, the grace and wisdom that God poured into the heart, and the instruction of the Bible that contains the results will stay in our hearts for a long time.





## 2023년 중등부 여름수련회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성을 돈독히 하였으며 서로가 친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3일(주일) 부흥회 때는 학부모님도 참가하셔서 교회가 가정과 연계하여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롱! 중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3일(주일)~25일(화) 충현기도원에서 '여호와살롱 (요16:33)'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 성교육특강, 부흥회, 중등부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진행한 공동체활동, 물놀이, GBS등으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보 여준 무지개,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약속들을 읽으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죄를 너무 많이 짓는 나를 보며 수많은 정죄감이 들었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존재가 되게 내버려두셨냐고, 내 정욕을 이길 수 없으시냐고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은 내 모든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자 할 때 아브람을 재워주셨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보다 훨씬 강하신 주의 사랑에 내 삶을 맡기고 주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송푸름 학생(중2)

이번 수련회는 학생과 선생님으로서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대화를 나누며 함께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경배와 찬양 시간에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저 또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들의 순수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등부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열심히 섬긴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과 다른 모든 선생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의미 있는 수련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최시온 교사



###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만난 귀한 시간"

여호와 살롱! 우리 다솜이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신화 속의 존재 아니냐? 나는 교회를 안다니겠다"며 방향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예배로 사춘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애타는 시간이었는지... 코로나 이후 다솜이에게서 무너진 예배를 어찌 다시 세울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굳건히 믿었던 것 한 가지는 다솜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이며, 방향 끝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임이었습니다. 중등부 이다현 목사님, 반 담임 나유경 선생님께서 다솜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또 중등부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면해주셨고, 마침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에서 제 여동생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동갑사촌인 은총이와 함께 중등부 예배도 가고, 용기내어 여름수련회도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부터 다솜이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중등부 선생님들의 아이디어 넘치는 수련회 기획과 홍보에 너무 재미있을 것 같으며 흥미를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부흥회와 학부모 기도회에 은총이 가족, 다솜이 가족 모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뜨거웠던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애타게 부르시고 계신지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다솜이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모든 시간 가운데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가득 채운 주님 사랑 가운데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빛나는 얼굴로 돌아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심 감사하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그 동안 밀린 성경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교회 열심히 갈게요"라고 말한 다솜이의 고백이 놀랍고 그저 은혜입니다. 중등부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아이들, 또 가족들까지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살아 계심을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안다솜(중1) 어머니(이선화 집사)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7일(목) ~ 29일(토)까지 '여호와 살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엔살롬(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롬의 은혜가 있게 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이때 청소년들의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고등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2023년 고등부 여름수련회



나의 존재 이유, 삶의 이유에 대해 깨달은 시간이었다. 수련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매우 바닥을 친 상태여서 마음이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회 옥상에서 오래 내려다봤다. 그 상태에서 수련회에서 마음껏 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했다. '나의 마음을 들으셨구나!'는 감사함을 느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물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같이 기도한 친구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1학년 2반 안사랑

이번 수련회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수련회들과 달랐다. 하필 기숙사 잔류 기간과 방과 후 수업이 겹쳐서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현장체험학습을 내야했던 것이다.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기까지 여러 힘든 절차였지만 수련회를 갈 수 있음에 감사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과 독특한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면서 학생회 구성원으로서의 마지막 수련회기에 준비하면서 즐거움과 더불어 아쉬움만 가득한 수련회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치는 사람이 없어 너무 감사한 나날들이었다. 부흥회 초반에는 모두를 위한 기도 위주로 기도회에 참여했다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 부흥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지만 2일차 부흥회 때 1,2,3학년과 태국 선교팀을 위해 다같이 기도했을 때 처음으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큰소리로 기도했던 경험이 지금까지도 잊어지지 않는 경험이었다.

2학년 5반 이수현

학원 3개를 빼고 온 수련회였다. 처음에는 곧 있을 보충과 쌓인 숙제로 불안했지만 수련회를 계속해보니 수련회에 오길 잘한 것 같다. 은혜가 많이 쌓여서 오히려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고, 공부를 사흘 정도 쉬 덕분에 공부할 체력을 보충할 수 있었다. 부흥회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코어 근육을 얻을 수 있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은 덕분에 그리고 여러 활동들을 한 덕분에 체력도 많이 길러줄 수 있었다.

2학년 3반 한민택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혀 둘째날 부흥회부터 참석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이동할 때 솔직히 반쪽짜리 수련회라고 생각했으나 부흥회 시간이 되고 그 생각은 전부 사라졌다. 지난번 겨울 수련회 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지만 학교에 가고 고3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다보니 어느 샌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신 기분이 들었었다. 사실 처음에 기도를 드릴 땐 정말 정말 입이 안 떨어졌다. 하지만 앞에 방석에 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뱃물 터지듯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새 내 얼굴을 눈물범벅이었고, 다리가 저린 것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번 에 다시 만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잊고 싶지 않다.

3학년 3반 노윤

올해 평소보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영적,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나에게 이번 수련회는 다시 한 번 주님 앞에 사역과 일 모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살롬을 누리며 살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수련회에서 경험한 주님을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2학년 학년과장 남명훈







## 7교구 동역교회

- 동해 해오름교회를 소개합니다. -

### - 예수 믿지 않는 '영일정씨' 문중 땅 위에 세워진 해오름교회

해오름교회는 2002년 동해시 태풍 루사와 2003년 연이은 매미 태풍으로 지역이 초토화돼 마치 전쟁터와 같았던 동해시 북평동 북평 민속장터 상가 2층에 2002년 개척 후, 설립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해오름교회는 2007년 '영일정씨'문중 땅을 임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교회를 건축(14.88㎡ 약4.5평)하였고, 해오름지역아동센터 및 해오름노인대학 또한 글여울 도서관을 설립하였습니다.

### - 하나님의 첫 번째 뜻 '동해시 이주 근로자'를 섬겨라!

동해시에는 1980년대 조성된 북평산업공단이 해오름교회 5분 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 받은 동해시에서 주님이 주신 그 첫 번째 뜻은 동해시 북평산업공단 내 이주근로자를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어느 주일에배후, 장날 전도를 통해 공단에 숨어서 일하는 불법체류 이주근로자 9개 나라 45명의 이주근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을 비롯해서 모로코,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네팔 등 불법체류 이주근로자들이 1년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업주들을 만나 체불 임금을 받아주고 의료보험이 없는 그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동해시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무료진료를 도움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개척 후 3년 동안 한 사람의 등록자도 없었던 해오름교회가 갑자기 외국인 45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후 재활용품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불법체류 근로자가 강제 출국을 당하기까지(4년간) 이주근로자 사역은 해오름교회가 동해시 정착기의 소중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 - 초고령화 사회 동해시 고령화율 22%, 꿈을 꾸는 노인 사회

동해시는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져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1급 항구인 동해항과 목호항이 있는 인구 9만의 복음화율 3% 이내의 도시로 이단(신천지, 구원파, 대순진리회, 제7안식교 등)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바닷가 미신과 산신 등 복음의 척박한 도시입니다. 교회 전도지를 교회 부적이라며 거부합니다.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해오름교회는 해오름지역아동센터(정원 37명), 해오름쉼터(학대피해아동), 해오름노인대학, 글여울작은도서관, 해오름마을공동체학교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복음화 전략의 교회사역을 지난 15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22%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동해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오름교회는 노인을 복지의 대상을 넘어 교육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오름노인대학'을 설치 운영하며, 꿈을 접는 노인세대가 아닌 꿈을 꾸는 노인세대의 여력이 사회의 동력이 되도록 노인을 교육하고 전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3~15일 충현교회 7교구와 협력 전도사역을 통해, 13일(금) 전국최대 북평민속장날 전도와 마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이미용봉사 등 15일(주일) 동해시 북평동 가을축제의 예배를 꿈꾸며 해오름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 해오름교회 기도제목

- ① 동해시 복음화를 위한 밀알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해오름교회 5대 기관(해오름지역아동센터/해오름쉼터(학대피해아동)/해오름노인대학/글여울작은도서관/해오름마을공동체학교)사회 소통사역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 ③ 해오름지구촌선교센터를 통해 지구촌 한 영혼 구령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 ④ 해오름교회 사역들이 농.어촌 미래사역의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 『충현 디지털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충현 디지털 역사관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세월 충현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흔적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접근하도록 만든 디지털 기록물 저장고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하고 이를 통해 영구적인 자료 보존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아카이브 시스템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속성과 인터넷이라는 구조를 접목하여 정보의 생산과 전달, 공유 속도를 극대화하고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월등히 향상했습니다. 충현 디지털 역사관은 충현교회에 남긴 신 하나님의 기록보관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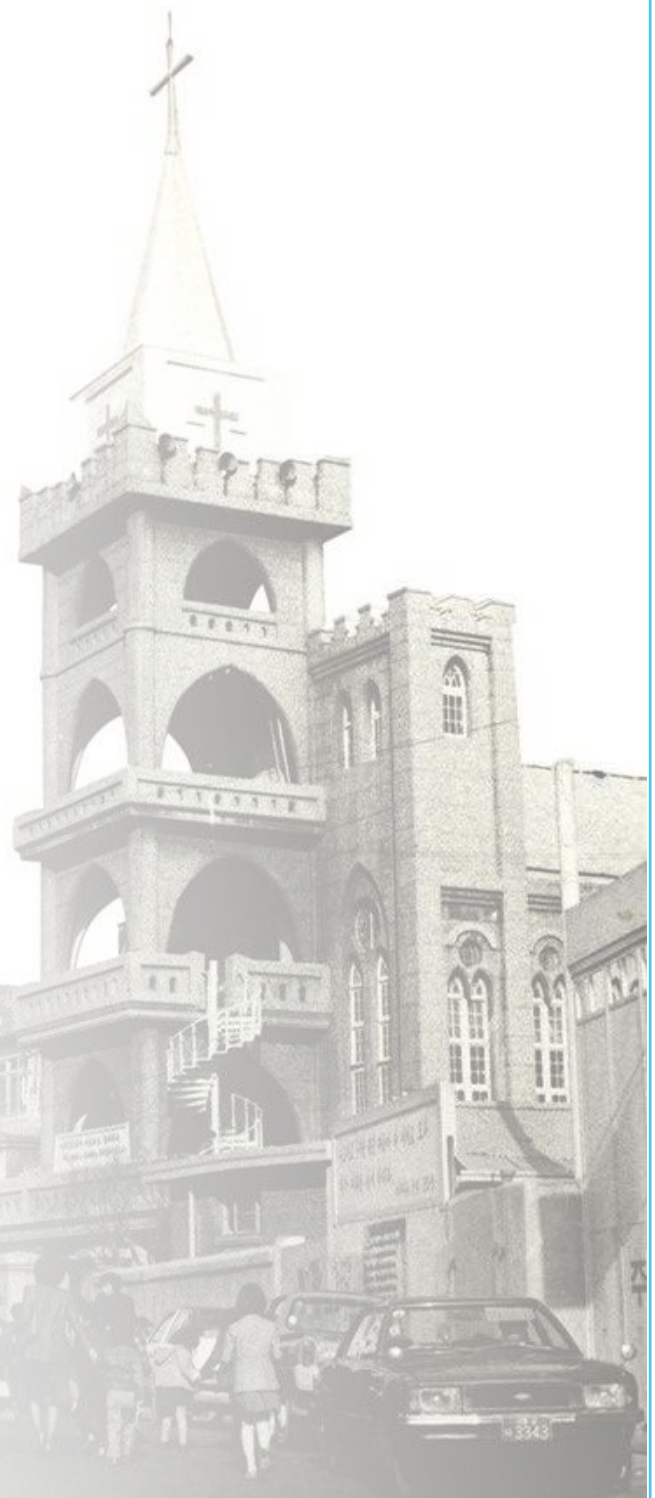
충현 디지털 역사관은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여 보관하며, 자료 간의 관련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고, 이것이 일반 데이터베이스와 큰 차이점입니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충현교회의 역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 외부의 성도, 목회자, 학생, 기업가, 정책가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현교회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제공하는 충현교회 역사 자료의 핵심 인프라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0년간 충현교회에서 펼쳐진 사역과 관련한 모든 기록물 즉, 교재, 사진, 동영상, 음원, 행정 문서, 기념품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교회의 중요 자료들도 이곳에서 수집·분류·선별·보존·전시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빌려주시면 디지털 자료로 만든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충현 디지털 역사관에 등록된 자료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제공됩니다. 자료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디지털 역사관 자료수집 및 문의

◇ 박노익 장로 010-5208-5380

◇ 문 희 집사 010-8860-3793



## 23년 충현평생대학원 가을학기 "2day 스마트폰 기초 클래스" 특강



제3의 언어! 스마트폰의 체계적 학습 기회가 특강으로 열립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문서, 영상, 자료의 접근과 공유, 열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녀에게 물어보기 미안하고 번거로웠던 모든 것을 당당하게 질문하고 몇 번이고 반복하여 알 때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유익한 삶의 질을 한 단계 UP하는 기회!! 많이 참여해주세요.



- 대상: 스마트폰 교육을 원하는 성도 선착순 50명(1학기과 동일한 내용)
  - 1학기 때 못 들으신 분들 먼저
  - 1학기 내용 반복 학습을 원하시는 분
  - 2번의 교육 기간에 모두 참석하실 수 있는 분
- 교육 기간: 23.8.26(토), 9.2(토) / 2day 특강 (한 주에 1회 교육, 총 2주간)
  - 10:00-15:00 (오전, 점심, 오후)
- 교육 방법: 각 조별 4명으로 수업진행, 실제 실습 중심의 반복, 밀착 학습, 질의 응답
- 교육 내용: 1주차 - 스마트폰 설정, 카카오톡, 유튜브 활용, 키오스크 등  
2주차 - 앱 활용에 집중, 길찾기, 대중교통 등의 일상생활 앱
- 수강료: 20,000원 (※중식제공)
- 지원: 차세대위원회 중심으로 강사 섭외(15명 예상)
- 신청: 충현교회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구글 설문지 또는 큐알 코드 링크로 작성 및 제출

**총현교회  
상근직원모집**

## 총현교회 전기기사 0명 모집

대상 및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제출처 : 사무국 김어현 집사(010-4181-1714), 552-8200(401)

## 사랑부 봉사자 모집

발달장애 성도들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                        |                      |                             |
|------------------------|----------------------|-----------------------------|
| <b>1. 사랑부 교사</b>       |                      |                             |
| 내 용 : 찬양·울돌, 행정교사      | 시 간 : 주일 10:30~12:30 | 장 소 : 제2교육관 2층 사무엘홀         |
| <b>2. 사랑부 여름수련회 헬퍼</b> |                      |                             |
| 날 짜 : 8월 14일(월)~15일(화) | 장 소 : 양평 숲속의아침       | 문 의 : 임진실 목사(010-9559-9467) |

## 8월 안수집사회 월례회

일 시: 8월 6일(오늘) 12:10      장 소: 집사회 사무실

## 안수집사 기도회

일 시: 매주 화요일 오전 05:30      장 소: 엠마오희

금주 단기선교 파송

|         | 선교 및 전도지역 | 팀장 및 파송인원      | 기간                   |
|---------|-----------|----------------|----------------------|
| 캄보디아 1팀 | 캄보디아 몬돌끼리 | 이왕진 안수집사 외 31명 | 8월 7일(월) ~ 8월 12일(토) |
| 캄보디아 2팀 | 캄보디아 프루샛트 | 홍순길 장로 외 4명    | 8월 7일(월) ~ 8월 14일(월) |
| 태국 1팀   | 태국 치앙마이   | 서은숙 권사 외 20명   | 8월 7일(월) ~ 8월 12일(토) |

## 예배 담당(8/9~8/13)

| 날 짜  | 예 배    | 설 교                                                 | 사 회 | 기 도 |
|------|--------|-----------------------------------------------------|-----|-----|
| 8/9  | 수요 I   | 하박국의 기도 (합3:16-19) 문진호 목사                           | 김주한 | 신은옥 |
| 8/11 | 금요집회   | 인류는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롬 5:9-11) 한규삼 담임목사            | 김승래 |     |
| 8/13 | 주일 I   | 구제할 때에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 6:1-4)<br>한규삼 담임목사 | 이다현 | 신광철 |
|      | 주일 II  |                                                     | 정석훈 | 오순도 |
|      | 주일 III |                                                     | 위안복 | 임창식 |
|      | 주일찬양   |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 84:1-7) 권혁근 목사                      | 김유석 | 장재순 |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교구별 주력새벽기도(8/7~8/13)

| 날짜     | 설교자/기도자  | 설교본문       | 주력교구 |
|--------|----------|------------|------|
| 7 (월)  | 윤준식/이진수B | 렘 16:1-13  | 5교구  |
| 8 (화)  | 한규삼/송영상  | 렘 16:14-21 | 전교인  |
| 9 (수)  | 김유석/강남석  | 렘 17:1-18  | 전교인  |
| 10 (목) | 전영재/김명식  | 렘 17:19-27 | 10교구 |
| 11 (금) | 박동진/김정민  | 렘 18:1-12  | 2교구  |
| 12 (토) | 김상래/김상래  | 렘 18:13-23 | 전교인  |
| 13 (주) | 이기영/이기영  | 렘 19:1-13  | 전교인  |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 구분     | 시간                                       | 장소   |
|--------|------------------------------------------|------|
| 주일예배   | I 오전 9:00                                | 본당   |
|        | II 오전 11:00<br>(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      |
|        | III 오후 1:00                              |      |
| 주일찬양예배 | 오후 3:30                                  | 본당   |
| 수요예배   | 오전 11:00(본당)                             |      |
| 금요일집회  | 오후 7:30                                  | 본당   |
| 새벽기도회  | 매일 오전 5:00                               | 갈릴리홀 |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 구분  | 시 간      | 차 량                                                                   |
|-----|----------|-----------------------------------------------------------------------|
| 화요일 | 오전 11:00 |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지행)<br>②호차 9:40 감실역 3번출구,<br>10:20 야당역 2번출구<br>BYC 앞 |

금주 화요집회 강사: 김승래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1교구

| 구분            | 시간          | 장소                  | 구분       | 시간                    | 장소                                                   |
|---------------|-------------|---------------------|----------|-----------------------|------------------------------------------------------|
| 영아부           | 10:50~12:00 | 바나나홀(제1교 103호)      | 사랑부      | 10:45~11:50 (성인)      | 시무엘홀(제2교 204호)                                       |
| 유아부           | 10:50~12:00 | 마태홀(제1교 201호)       |          | 11:00~12:00 (아동, 청소년) |                                                      |
| 유치부           | 10:50~12:00 | 마카홀(제1교 202호)       | 성경아카데미   | 12:20~13:30 (에스라)     | 디도홀(제1교 401호)                                        |
| 유년부           | 10:50~12:00 | 바울홀(제1교 301호)       |          | 12:40~13:40 (아볼로)     | 디모테홀(제교 304호)                                        |
| 초등부           | 10:45~11:30 | 디모테홀(제1교 304호)      | 소망부      | 12:15~13:30           | 갈릴리홀                                                 |
| 중등부           | 10:45~11:45 | 빌레몬홀(제1교 404호)      | 새가족기본과정부 | 오후 12:10              | 베다니홀                                                 |
| 고등부           | 10:45~11:40 | 베드로홀(제1교 504호)      | 새가족양육부   | 오후 12:10              | 엠마오홀                                                 |
| 청년 1부         | 14:00~15:30 | 에스라홀(제3교 B301호)     | 11교구     | 오후 12:10              |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
| 청년 2부         | 14:00~15:20 | 한나홀(제2교 402호)       | 어와나부     | 19:10~20:50(금요일회시)    | 제2교육관 4층                                             |
| 브릿지공동체        | 14:00~15:30 | 시무엘홀(제2교 204호)      |          |                       |                                                      |
| 청년 3부         | 12:30~13:50 | 누가홀(제1교 204호)       | 예꿈 양육부   | (주) 12:00~14:45       |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br>예꿈돌봄교실(제교 701호)<br>예꿈교실(제교 702호) |
| 신혼가정부         | 12:30~13:30 | 두란노홀(제1교 102호)      |          |                       |                                                      |
|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 13:00~13:50 | 야고브홀(제1교 501호)      | 충현어린이집   | 주간교육                  | 제2교육관 1층                                             |
| 에바디부          | 12:40~13:40 | 여호수아홀<br>(제2교 301호) | 발달장애인교육  | 주간교육                  | 충현복지관                                                |
|               |             |                     | 충현평생대학원  | (목) 오전 11:00          | 갈릴리홀                                                 |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총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가족 등록>

| No. | 등록번호 | 성명  | 교육과정 | 인도자 |
|-----|------|-----|------|-----|
| 1   | 1340 | 김구일 | 외선부  | 박성욱 |
| 2   | 1341 | 김도희 | 고등부  | 박성욱 |
| 3   | 1351 | 공현남 | 기본과정 | 이승배 |
| 4   | 1368 | 이현서 | 유아부  | 이승배 |
| 5   | 1362 | 송다영 | 청년1부 |     |
| 6   | 1363 | 송권호 | 청년1부 |     |
| 7   | 1364 | 박재준 | 기본과정 |     |
| 8   | 1365 | 이종진 | 기본과정 | 박재준 |
| 9   | 1369 | 고승재 | 기본과정 |     |
| 10  | 1370 | 김미원 | 기본과정 |     |

**<교육위원회 등 록>**

| No. | 등록번호 | 성명  | 교육과정 | 인도자 |
|-----|------|-----|------|-----|
| 1   | 1316 | 성민제 | 영아부  |     |
| 2   | 1334 | 임소율 | 영아부  |     |
| 3   | 1373 | 이노아 | 영아부  |     |

### <개인 등록>

| No. | 등록번호 | 성명  | 교육과정 | 인도자 |
|-----|------|-----|------|-----|
| 1   | 1327 | 전용호 | 외선부  | 전승기 |
| 2   | 1342 | 김경옥 | 기본과정 | 유호균 |
| 3   | 1346 | 장혜자 | 기본과정 |     |
| 4   | 1348 | 이용국 | 에바디부 | 김옥산 |
| 5   | 1366 | 이희산 | 기본과정 | 유병규 |
| 6   | 1367 | 조을순 | 기본과정 | 김석영 |
| 7   | 1371 | 김충환 | 기본과정 | 조필형 |

### <차세대위원회 등록>

| No. | 등록번호 | 성명  | 교육과정 | 인도자 |
|-----|------|-----|------|-----|
| 1   | 1303 | 박현수 | 브릿지  |     |
| 2   | 1304 | 김주영 | 청년2부 |     |

별  
세

1. **오정자 성도**(9교구, 이수일 성도의 아내·이성훈 집사·이혜경 성도의 모친·정창화 성도의 장모)/7월 28일 별세, 7월 31일 장례
2. **김단순 명예권사**(이명자 권사의 모친·우기섭 집사의 장모, 8교구)/8월 2일 별세, 8월 4일 장례
3. **이창우 성도**(김영옥 성도의 남편·이진 집사의 부친·류기재 안수집사의 장인, 9교구)/8월 2일 별세, 8월 5일 장례
4. **김무선 성도**(최미자 권사의 모친, 5교구)/8월 3일 별세, 8월 5일 장례

주간  
충현